정읍시, 농업과학분야 진로 · 직업체험 기회 제공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을 방문해 미래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농업과학분야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체험은 농업과학관에서 농업의 변천사를 둘러보고 미래농업관에서 농업과학이 만들어 가는 세상을 미리 경험하도록 진행됐다.

이날 청소년들은 농업과학관 외에도 완주 상관면에 위치한 '꿈꾸는 아이'를 방문해 △엔터테인먼트존 △뷰티&공예존 △IT&코딩프로그램존 △미래창의존 △요리존 △특수직업존 등 6개 영역의 총 24가지 직업 중 3가지를 선택해 직업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꿈을 잡아라 잡월드 탐방', '진로멘토링, 내꿈의 대학탐방' 등 1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6일, 신규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했다.

신규 임용자들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 중앙소방학교에서 19주간 교육을 받았고 5주간 소방관서 실무수습을 통해 현장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했다.

이들은 앞으로 4일간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실무대응능력 강화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및 현장활동 안전수칙 △안전사고 방지 등의 교육을 추가로 받은 후 각 센터·구조대에 배치되어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남원소방서는 신규임용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개인별 멘토를 지정하고 기존 대원들과의 팀워크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 100%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위험물 제조공정 안전관리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6일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공정 안전관리북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안전관리북은 위험물을 생산하는 제조소의 △일반현황 △취급 위험물의 세부정보 △응급조치 계획 △제조공정별 위험성 및 대응방법을 설명한 자료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위험물 제조소 사고대응 지침서다.

안전관리북을 제작하기 위해 소방본부는 위험물 자격자 등 소방공무원 5명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해 올해 2월부터 도내 149개 위험물제조소를 방문해 자료수집과 의견수렴, 제조공정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난 9월 안전관리북을 최종 완성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성료

미국 케런 리엘, 홍콩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출전권 획득

품새 단일 종목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이하 '품새 오픈 챌린지') 대회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G4 등급의 국제 대회로 국가대표 공인 품새 부문 우승자에게는 G8 등급의 '홍콩 2024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출전권이 부여된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여자 공인 품새 30세 이하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 Karyn Real(케런 리엘/ 22세)에게 돌아갔다. MIT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케런 리엘은 16세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오픈 부문에서는 개인과 복식, 단체 공인·자유 품새 경기가 연령대별로 진행되었다. 자유 품새 남자 17세 이상 부문에서 한국 장운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총 35개 부문에서 우승자가 가려지며 메달과 상금 등의 포상이 주어졌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을 찾은 선수와 심판 등 관계자들에게 태권도원과 전주 한옥마을 투어, 유급자와 유단자를 위한 품새 세미나 개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대회 참가 외에도 한국을 알리고 태권도 기술을 보급하는 등 문화 축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했다는 평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참가 선수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전라북도, 무주군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태권도 유망주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 줄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줄포우워니마을축제' 개최

줄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지난 4일 침체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줄포 브랜드 발굴을 통한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제1회 줄포우워니마을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줄포 도시재생 대상지 9개 마을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 ESG 프로젝트의 작은 실천으로 친환경 문화축제의 장으로 기획됐다.

먼저 '줄포 브랜드 체험프로그램'과 '주민 뽐내기 공연'을 구성하여 줄포 도시재생 예비사업 결과 전시, 연날리기, 짚풀공예, 반려식물만들기, 자가 핸드폰 충전소, 나무젓가락 만들기, 리폼&수선, 어르신치매예방프로그램, 음식나눔 먹거리 등 부스를 운영해 나눔과 환경, 추억을 주제로 한 화합의 마당을 열었다.

메인 무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흑설공주 뮤지컬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우쿠렐레 및 색소폰 공연, 마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줄포 초·중·고학생들이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된 용기를 세척하는 것을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장기를 뽐내 주민 화합의 장이 되었다.

김익성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회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폐항 이후 상실의 이미지를 넘어 줄포 새싹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고, 군 관계자는 "줄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함께 전북 제2호 지방정원인 줄포만 노을빛 정원을 연계한 줄포 ESG 특화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 대산면, 노인 치매 바로알기 예방 교육

남원시 대산면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치매 바로알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치매안심과와 연계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일상에서 치매를 감지할 수 있는 증상, 종류를 소개하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실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직무 및 소양 교육도 병행했다.

한 어르신은 "교육을 통해 치매관리의 중요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게 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류창 대산면장은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사업수행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무주소방서는 오는 24일까지 3주동안 무주 관내 초등학생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4절지 크기에 자유롭게 그리면 된다.

공모전 접수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개인별 또는 단체별로 응모가 가능하고 무주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063-780-3243)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이 결정되며 최우수작품은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상과 함께 전라북도 본선대회에 출품하게된다. 그 외 우수작품에는 우수상과 장려상 등이 수여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교육담당자(063-780-3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김제시협의회, 전국회원대회 참가

바르게살기운동 김제시협의회(회장 이권재)는 7일 대구시에서 개최된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가했다.

지난 34년간 나눔과 배려를 통해 국민대통합에 앞장서 온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에 대한 격려와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역할 다짐을 위해 개최된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김제시협의회 25여 명이 참가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기념 이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